

# 35

## 이방에서 높임 받은 다니엘

단 1, 6장  
은혜찬송 172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45장 (감사해)

오늘 배울



1.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지킨 다니엘의 결단을 배웁니다.
2. 일상에서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단 1:17)

다니엘은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단 1: 8~9)



## 을 이해하기

소년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귀족의 자녀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되며, 이름 역시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는 의미의 ‘다니엘’에서 ‘벨이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바뀌게 되는 등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소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하고 세 친구(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어떠한 위협과 시험이 오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며 신앙의 원칙을 지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의 시대에는 왕이 아닌 다른 어느 신에게도 절할 수 없으며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무서운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셨고 다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를 거쳐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무려 70여 년을 이방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일하였습니다. 여러 왕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격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포로의 신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

Now when Daniel knew that the writing was signed, he went home. And in his upper room, with his windows open toward Jerusalem, he knelt down on his knees three times that day, and prayed and gave thanks before his God, as was his custom since early days. (Dn 6:10)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다니엘이 지켰던 습관은 무엇이었는지 적어 봅시다.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 하여 채소와 물로 식물을 삼았습니다. 왜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몸을 더럽히는 것인지 찾아 적어봅시다(행 15:29, 고전 10:19~21).

2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셔서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찾아 적어봅시다(단 2:46~49, 고후 2:14).

- 느부갓네살왕이 생각하게 된 하나님 :

-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에게 취한 태도 :

3 다니엘은 우리 나이에 부모님과도 이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먹는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학교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도록 한 가지씩 행할 일을 정하고 구별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 내가 행할 일 :

- 구별 되어야 하는 이유 :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단 1:17

---

---

---

---

---

---

---

---

의

단 2:47

---

---

---

---

---

---

---

---

화

단 6:26

---

---

---

---

---

---

---

---

↑

요 14:21

---

---

---

---

---

---

---

---

↓

요 15:7

---

---

---

---

---

---

---

---

↓

행 15:29

---

---

---

---

---

---

---

---

↓

고후 2:14

---

---

---

---

---

---

---

---



## 환한 불빛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매님은 교제가 무척 그리웠기 때문에 버스로 약 4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교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여러 자매님들과 교제를 끝마친 후 간신히 막차를 타고 자매님이 다니는 대학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매님의 집까지 가는 버스가 끊어져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12시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고 인도도 전혀 없는 어둡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매서운 바람 소리, 자매님의 심장소리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영하를 훨씬 밑도는 추운 날씨로 인해 두 다리는 감각을 잃어갔고, 온몸은 피곤에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을 2시간 넘게 걸어온 자매님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어귀에서 환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자매님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교제와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교제와 말씀을 떠난 생활은 자신이 걸어온 두렵고 불안한 길을 걷는 것과 같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 27:1)



## 질문 있어요~



세상을 보면 악한 꾀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복을 받아야 할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아삽’이라는 인물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시 73:2~5)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고민하던 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놓았을 때 그 답을 얻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시 73:16~19)

그는 악인의 운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된 것은 잠깐의 꿈만 같은 것이고,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사 형통하던 악인이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만약 영원한 내세가 없다면 당연히 의인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은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금세는 잠시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 3:3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생과 근심과 불행한 일을 통하여 각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날 때부터 유전된 병이 구원을 받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선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